

1사1촌 현장 ⑦ ... 관인면 탄동2리 ♥ 한국은행

시유지 活用해 농사체험장 開設 필요

國家금융기관 敎育으로 人材육성 기회 마련

포천시 관인면 탄동2리(이장 조용철) 숲골마을은 200여명이 벼농사와 축산업을 종사하며 살고 있다. 벼농사 면적은 10만여평이 달하며 축산농가는 낙농업을 주로 하고 있다.



이성태 한국은행총재



조용철 탄동2리 이장

과거에 숲을 구워서 팔고 생산했던 마을이라 하여 '숲골마을'로 불려지고 있다. 탄동2리는 친환경 쌀을 생산하는 마을로 유명하다. 상수원보호지역으로 넓은 농지에서 생산하는 무공해 쌀은 널리 알려져 있다. 오리농법을 시작하여 차별과 전락을 필적하며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정보화마을을 추진하여 잘사는 마을 만들기에 200여명의 주민들이 한마음이 되었다.

지난해 한국은행과의 자매결연과 이같은 취지에서 체결했다. 2005년5월13일 포천시 관인면 탄동2리 숲골마을에서 당시 박승 한국은행 총재와 정대근 농업중앙회장, 이석우 경기도 행정제2부지사, 박국우 포천시장, 마을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사1촌운동 결연식을 가졌다.

박 총재는 이날 결연식에서 "그동안 한국 경제발전의 밑거름 구실을 한 것이 농촌"이라며 "농촌에 대한 지원은 단순히 농사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역사, 민심을 지키는 것이므로 한 은도 힘 닿는대로 농촌을 돕겠다"고 강조했다. 정 농업중앙회장은 "농업은 쌀 생산뿐만 아니라 밭농사, 축산, 양잠 등을 통해 모두 28조원에 달하는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며 "우리 나라 물가안정을 책임지는 한은이 1사1촌운동에 동참해 농촌마을과 자매결연을 한 것은 역사

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이후 한국은행은 상호직거래를 통해 사과 150상자, 쌀 20kg 100포대를 구입하고 일손이 바쁜 여름철에는 봉사활동에 나서기도 했다. 특히 숲골마을 주민 30여명을 서울로 초청해 한국은행 박물관과 청계천을 관람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도 했다. 또 한국은행이 회교 직원들이 숲골마을을 방문해 마을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경제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같은 한국은행에 감사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관인면 숲골마을 주민들은 지난해 12월23일 한국은행 총재에게 공로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공로패에는 "마을주민들의 의식 변화와 마을 발전 방향에 많은 도움말을 주신 한국은행측에 감사드립니다."라고 적혀 있다.

조 이장은 "한국은행과 교류하고 경제교육도 받으면서 유통, 판매, 브랜드 등에 대한 경제 마인드도 생기고 우리 농촌이 나갈 바를 깨닫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8월에는 신임 이성태(사진) 한국은행 총재의 편지도 받았다. 이성태 총재는 "탄동리 마을과 한국은행이 농도상생(農都相生)의 정신을 바탕으로 '1사1촌운동' 결연을 한 지도 1년이

원천 지났습니다. 그동안 한은은 탄동리에서 생산한 무공해쌀과 친환경 사과를 직거래로 구입하는 한편 마을주민의 한은 방문,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등의 사업도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많은 한은 직원들이 농촌을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흐뭇했습니다."라며 "농촌사랑 1사1촌 운동을 통해 도시 사람들이 자연과 농촌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이런 깨달음이 결과에는 환경과 농촌사랑운동을 확산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은 직원들이 자녀들과 탄동리를 자주 찾을 수 있도록 함께 연구해 보았으면 합니다."라고 밝혔다.

조 이장은 앞으로 1사1촌 자매결연을 통해 전형적인 시골마을의 장점을 알리고 한국은행 직원들이 시골친척집에 왔다는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고 주말농장을 개설해 농업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나아가 이 지역에서 자라고 있는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한국



관인면 탄동2리 숲골마을과 한국은행간 1사1촌운동결연식이 2005년 5월13일 개최됐다.

은행에 입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은행 기획혁신팀 한범희 과장은 "고령화, 수입개방압박 등으로 어려운 농촌의 현실을 직원들이 이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유지를 개간하여 농사체험을 할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도시인의 농촌이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한다. 특이한 과장은 농촌일손돕기라는 개념보다는 팜스테이 사업 등 수익 사업 마인드로 전환이 필요할 시점이라고 강조한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는 "을 하반기에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설하고 내년에는 관인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직원1명당 사과나무 1그루를 직접 관리하고 수확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촌마을과 기업간의 매개자 역할에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야 한다는 한국은행 관계자의 말에 귀 기울여 1사1촌 자매결연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탐방 우리 지역의 사업소 ⑥ 민한의원

"환자는 내 家族으로 여긴다"



원장 안민

환자를 내 가족처럼 생각하고 환자의 질병치료를 최선을 다하는 민한의원(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회성리치프라자 602호 원장 안민)

30대 중반의 젊은 민한의원 안민 원장은 전통 한방과 현대의학의 접목을 통해 환자의 건강상태를 진단하고 치료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대 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인스턴트 식품과 운동 부족, 각종 스트레스 등은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몸의 균형을 해쳐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식생활 개선은 물론 운동을 꾸준히 해야한다. 환자의 경우

에 다시 입학해 한의사의 길을 걷게 됐다.

민한의원의 진료과목은 ▶한방여성클리닉 : 생리통, 비만, 불임, 출산전후관리, 노화방지, 갱년기장애 ▶한방남성클리닉 : 성인병, 복부비만, 스트레스, 보양 ▶한방특수클리닉 : 아토피,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 성장장애, 수험생관리 ▶한방통증재활클리닉 : 디스크, 관절염, 중풍예방, 감기, 교통사고환자, 스포츠클리닉 등이다.

민한의원에서는 비만관리와 출산전후관리, 아토피, 비염, 디스크, 관절염, 중풍예방, 감기 등을 전문 진료과목으로 취급하고 있다.

안 원장은 모든 성인병의 원인인 비만관리를 위해 인체의 체지방 분석을 실시하고 몸에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정 체중을 유지할 수 있도록 침과 물리치료를 실시하고 있다.

또 무리한 체중감량 보다 요요현상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생활패턴 등의 변화를 통해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여성은 출산후관리가 제대로 안되면 평생 고질병으로 남는다. 한방에서는 산후관리 방법으로 손목과 엉덩이, 통증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있다. 산후 여성들은 몸에 누적된 노폐물을 없애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건강의 지름길이다. 노폐물을 제거하기 위해 한방에서는 침과 뜸, 물리치료를 병행하고 있다.

傳統한방과 現代 의료장비 접목 질병원인 치료 생활습관 바꿔야 체질개선 ... 건강한 몸 유지

에는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체질개선이 선행되어야 하고 침과 뜸 요법 등으로 치료해야 한다. 아울러 전통 한방요법과 현대의학의 접목시켜 환자 상태를 살펴보고 치료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안민 원장은 광주광역시 출생으로 서울대를 졸업했다. 서울대를 졸업한 후 부친의 권유와 한방으로 불편한 몸을 치료받은 적인 있는 본인의 희망에 의해 진료를 변경하도록 결심하고 동신대 한의학과에 입학하게 되면서 한의사가 되는 길을 택하게 된다.

안 원장은 학창시절 허리 디스크로 몸이 고생을 하던 중 민간의학에 조예가 깊었던 부친의 권유로 한방으로 완치되어 한방의 우수성을 직접 체험했다. 이때부터 한방에 매료되었다. 그러나 사회현실을 감안해 서울대에 진학했으나 여전히 한의학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가 없었다. 결국 졸업한 후 진로를 변경하기로 하고 한의대

아토피는 인스턴트와 자극성이 강하고 찬음식을 많이 섭취가 가장 큰 원인이다. 어린이가 아토피에 걸리게 되면 성장장애나 학습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 아토피를 치료하는 방법은 체질개선과 피부에 로션, 크림 등 한방화장품 등을 이용해 치료하고 있다.

안민 원장은 "환자의 수면과 식습관 등 생활습관이 누적되면 체질이 바뀌게 된다"면서 "이러한 질병의 원인을 파악하고 생활습관을 변화시켜 병의 근본을 치료하는 것이 한방의 장점"이라고 말했다.

또 환절기 건강관리에 대해 "외출후 세안이나 양치질 등을 습관화하면 감기를 예방할 수 있고 40~42에서 10분에서 20분정도 족욕을 하면 수면을 취할 수 있다"며 일정한 패턴의 건강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민한의원에는 체지방 분석기와 레이저 침 등의 현대적 장비를 갖추고 전통한방과 현대장비로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다.

재테크 ④ 보험 똑 소리 나게 잘 드는 방법

주변에서 큰 병에 걸린 사람이 나 갑작스런 사고를 당한 사람들을 보면 가장 먼저 묻게 되는 것이 "보험은 들어?" 하는 것이다. 보험이 있다면 내 일처럼 안심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엔 무척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이렇듯 보험은 불행한 일이 닦쳤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찾게 되는 가정의 안전판이다.

보험에 대해서 사람들은 세 번 후회한다고 한다. 가입했을 땐 괜히 가입한 건 아닐까하고 후회하고, 일이 일어났을 땐 좀 더 크게 가입할 걸 하며 후회하고, 건강을 잃고 나선 건강할 때 미리 가입할 걸 하며 후회한다고 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보험을 제대로 가입하는 요령 또는 가입한 보험이 적절하지 않아보는 방법을 살펴보자.

우선 보험은 보장의 범위가 넓

어야 한다. 한 두 가지의 질병만(암 또는 특정 성인질환) 집중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거나 재해 보장 중심의 보험은 구멍 난 우산과 같다. 우리가 병을 골라서 걸릴 수는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해 보장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보험은 보장의 기간이 길어야 한다. 점점 수명이 길어지고 있고 질병 발생 확률은 나이가 들수록 더 늘어나므로 충분한 기간 동안 보장받아야 한다.

50세나 60세 만기 상품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만기 후에 새로 가입하려면 나이가 많아서 보험료가 비싸므로 젊어서 가입할 때 충분한 기간까지(8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보장의 규모가 충분해야 한다. 암과 같은 질병은 교역의

뿐만 아니라 한 번의 발병으로 정상복구가 힘들고 치료기간이 길기 때문에 간병비까지 고려하여야 한다.

이상을 유념하여 자신이 원하는 보장 규모를 정하면 되는데 은 가족의 보험료는 월 소득의 15% 정도면 적당하다고 할 수 있다.

보험도 진화하는 상품이라 오래 전에 들었던 보험으로는 만족할만한 보장을 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3년 또는 5년마다 전문가에게 재검토를 받아서 불필요한 것은 줄이고 필요한 것은 채우는 리모델링을 해야 큰 일이 닦쳤을 때 낭패를 보는 일이 없다.

1. 가정의 사망 시 : 남은 가족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의 생활비와 자녀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교육비가 준비되어야 한다. 자녀를 둔 가장이라면 적어도 1억 정도가 필요하다.

2. 임종 및 치료비 : 최근 들어 개발된 효과 좋은 항암제는 의료보험으로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고가의 약을 사용하여 치료받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해야 한다.

3. 심근경색, 뇌출혈 등 중대한 질병 : 교역의 치료비가 들

면만 아니라 한 번의 발병으로 정상복구가 힘들고 치료기간이 길기 때문에 간병비까지 고려하여야 한다.

이상을 유념하여 자신이 원하는 보장 규모를 정하면 되는데 은 가족의 보험료는 월 소득의 15% 정도면 적당하다고 할 수 있다.

보험도 진화하는 상품이라 오래 전에 들었던 보험으로는 만족할만한 보장을 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3년 또는 5년마다 전문가에게 재검토를 받아서 불필요한 것은 줄이고 필요한 것은 채우는 리모델링을 해야 큰 일이 닦쳤을 때 낭패를 보는 일이 없다.

이상을 유념하여 자신이 원하는 보장 규모를 정하면 되는데 은 가족의 보험료는 월 소득의 15% 정도면 적당하다고 할 수 있다.

보험도 진화하는 상품이라 오래 전에 들었던 보험으로는 만족할만한 보장을 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3년 또는 5년마다 전문가에게 재검토를 받아서 불필요한 것은 줄이고 필요한 것은 채우는 리모델링을 해야 큰 일이 닦쳤을 때 낭패를 보는 일이 없다.

이상을 유념하여 자신이 원하는 보장 규모를 정하면 되는데 은 가족의 보험료는 월 소득의 15% 정도면 적당하다고 할 수 있다.

보험도 진화하는 상품이라 오래 전에 들었던 보험으로는 만족할만한 보장을 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3년 또는 5년마다 전문가에게 재검토를 받아서 불필요한 것은 줄이고 필요한 것은 채우는 리모델링을 해야 큰 일이 닦쳤을 때 낭패를 보는 일이 없다.

이상을 유념하여 자신이 원하는 보장 규모를 정하면 되는데 은 가족의 보험료는 월 소득의 15% 정도면 적당하다고 할 수 있다.

보험도 진화하는 상품이라 오래 전에 들었던 보험으로는 만족할만한 보장을 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3년 또는 5년마다 전문가에게 재검토를 받아서 불필요한 것은 줄이고 필요한 것은 채우는 리모델링을 해야 큰 일이 닦쳤을 때 낭패를 보는 일이 없다.

이상을 유념하여 자신이 원하는 보장 규모를 정하면 되는데 은 가족의 보험료는 월 소득의 15% 정도면 적당하다고 할 수 있다.

보험도 진화하는 상품이라 오래 전에 들었던 보험으로는 만족할만한 보장을 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3년 또는 5년마다 전문가에게 재검토를 받아서 불필요한 것은 줄이고 필요한 것은 채우는 리모델링을 해야 큰 일이 닦쳤을 때 낭패를 보는 일이 없다.

이상을 유념하여 자신이 원하는 보장 규모를 정하면 되는데 은 가족의 보험료는 월 소득의 15% 정도면 적당하다고 할 수 있다.

보험도 진화하는 상품이라 오래 전에 들었던 보험으로는 만족할만한 보장을 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3년 또는 5년마다 전문가에게 재검토를 받아서 불필요한 것은 줄이고 필요한 것은 채우는 리모델링을 해야 큰 일이 닦쳤을 때 낭패를 보는 일이 없다.

이상을 유념하여 자신이 원하는 보장 규모를 정하면 되는데 은 가족의 보험료는 월 소득의 15% 정도면 적당하다고 할 수 있다.

보험도 진화하는 상품이라 오래 전에 들었던 보험으로는 만족할만한 보장을 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3년 또는 5년마다 전문가에게 재검토를 받아서 불필요한 것은 줄이고 필요한 것은 채우는 리모델링을 해야 큰 일이 닦쳤을 때 낭패를 보는 일이 없다.

이상을 유념하여 자신이 원하는 보장 규모를 정하면 되는데 은 가족의 보험료는 월 소득의 15% 정도면 적당하다고 할 수 있다.

보험도 진화하는 상품이라 오래 전에 들었던 보험으로는 만족할만한 보장을 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3년 또는 5년마다 전문가에게 재검토를 받아서 불필요한 것은 줄이고 필요한 것은 채우는 리모델링을 해야 큰 일이 닦쳤을 때 낭패를 보는 일이 없다.

이상을 유념하여 자신이 원하는 보장 규모를 정하면 되는데 은 가족의 보험료는 월 소득의 15% 정도면 적당하다고 할 수 있다.

보험도 진화하는 상품이라 오래 전에 들었던 보험으로는 만족할만한 보장을 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3년 또는 5년마다 전문가에게 재검토를 받아서 불필요한 것은 줄이고 필요한 것은 채우는 리모델링을 해야 큰 일이 닦쳤을 때 낭패를 보는 일이 없다.

이상을 유념하여 자신이 원하는 보장 규모를 정하면 되는데 은 가족의 보험료는 월 소득의 15% 정도면 적당하다고 할 수 있다.

보험도 진화하는 상품이라 오래 전에 들었던 보험으로는 만족할만한 보장을 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3년 또는 5년마다 전문가에게 재검토를 받아서 불필요한 것은 줄이고 필요한 것은 채우는 리모델링을 해야 큰 일이 닦쳤을 때 낭패를 보는 일이 없다.

이상을 유념하여 자신이 원하는 보장 규모를 정하면 되는데 은 가족의 보험료는 월 소득의 15% 정도면 적당하다고 할 수 있다.

보험도 진화하는 상품이라 오래 전에 들었던 보험으로는 만족할만한 보장을 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3년 또는 5년마다 전문가에게 재검토를 받아서 불필요한 것은 줄이고 필요한 것은 채우는 리모델링을 해야 큰 일이 닦쳤을 때 낭패를 보는 일이 없다.

이상을 유념하여 자신이 원하는 보장 규모를 정하면 되는데 은 가족의 보험료는 월 소득의 15% 정도면 적당하다고 할 수 있다.

보험도 진화하는 상품이라 오래 전에 들었던 보험으로는 만족할만한 보장을 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3년 또는 5년마다 전문가에게 재검토를 받아서 불필요한 것은 줄이고 필요한 것은 채우는 리모델링을 해야 큰 일이 닦쳤을 때 낭패를 보는 일이 없다.

이상을 유념하여 자신이 원하는 보장 규모를 정하면 되는데 은 가족의 보험료는 월 소득의 15% 정도면 적당하다고 할 수 있다.

보험도 진화하는 상품이라 오래 전에 들었던 보험으로는 만족할만한 보장을 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3년 또는 5년마다 전문가에게 재검토를 받아서 불필요한 것은 줄이고 필요한 것은 채우는 리모델링을 해야 큰 일이 닦쳤을 때 낭패를 보는 일이 없다.

이상을 유념하여 자신이 원하는 보장 규모를 정하면 되는데 은 가족의 보험료는 월 소득의 15% 정도면 적당하다고 할 수 있다.

보험도 진화하는 상품이라 오래 전에 들었던 보험으로는 만족할만한 보장을 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3년 또는 5년마다 전문가에게 재검토를 받아서 불필요한 것은 줄이고 필요한 것은 채우는 리모델링을 해야 큰 일이 닦쳤을 때 낭패를 보는 일이 없다.

이상을 유념하여 자신이 원하는 보장 규모를 정하면 되는데 은 가족의 보험료는 월 소득의 15% 정도면 적당하다고 할 수 있다.

사제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늦어도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라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차지연 씨는, 3월 1일 가게를 임차하여 실내공사를 마치고 3월 20일부터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여러 가지 바쁜 일 때문에 4월 15일에 가서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려 세무서를 방문하였다.

그런데 담당직원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검토해 보더니 "사업자등록 신청을 제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간을 놓쳐야 하고, 매입세액도 일부 공제 받을 수 없다고" 하지는 않나?

가산세 부담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예정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까지의 매출액에 대하여 1%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매입세액공제 사업을 개시하기 전이라도 실내 장식을 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할 수 있는데, 내부공사가 완료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한 날로부터 20일을 지나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즉,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이 지난 매입세액은 공제 받지 못한다. 차지연 씨의 경우 4월 15일부터 소급하여 20일 전인 3월 25일 이전에 끝난 실내공사대금과 구입한 비품 구입금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에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아무리 늦어도 최초 비품 등을 구입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자료제공 : 의정부세무서(031-870-4252)

산업안전사고 예방

압출기에 페비닐 투입작업 중 팔이 함께 말리면서 협착

▲재해개요

• 페비닐로 정화조를 생산하는 업체에서 재해자가 압출기에 페비닐 투입작업 중 스크류 컨베이어에 페비닐과 함께 우측 팔이 말려 들어가면서 복부가 압박되어 장기 파열로 사망한 재해임.

▲재해발생 원인

가. 페비닐 압출기에 방호울 미설치 -페비닐 투입작업시 옷 또는 신체의 일부가 스크류 컨베이어에 의해 페비닐 압출기에 말려 들어갈 위험이 있으므로 페비닐투입구 부분을 제외하고 방호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동력차단장치의 설치 위치 변경 -페비닐 압출기 안에 설치된 스크류 컨베이어에 근로자가 협착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비상시 근로자가 동력차단 장치를 적절히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함.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경기북부지도원(031-826-6091)



재해발생장황도

함께 옷 또는 신체의 일부가 말려 들어갈 위험이 있으므로 페비닐투입구 부분을 제외하고 방호울을 설치하여야 함. 나. 동력차단장치의 설치 위치 변경 -페비닐 압출기 안에 설치된 스크류 컨베이어에 근로자가 협착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비상시 근로자가 동력차단 장치를 적절히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함.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경기북부지도원(031-826-6091)

국민연금 Q&A

자살해도 유족에 연금지급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나 연금수급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유족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가족 중 누군가가 연금 수급권자를 살해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유족연금을 지급 받을 권리를 잃게 되지만, 다른 가족이 권리를 갖게 된다. 유족연금 우선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이다.

유족연금은 가입자인 남편이 사망한 날의 다음달부터 5년간 지급 받은 뒤 소득이 있으면 50

그렇다면 개인연금 가입자가 자살한 경우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이 경우 유족의 청구로 납입원금이 이자를 더해 받을 수 있지만, 유족연금액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연금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사회보장 성격이

강해 유족들에게도 연금을 지급하지만 개인연금은 유족들에게 연금을 주지는 않는다. 요즘 개인연금에도 보험 성격을 부여하고 있기는 하나, 국민연금이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소득 있는 업무종사에 따른 유족연금 정지기간】

- ① 처 32세, 자녀 3세인 경우
 - 자녀 18세 되는 15년 지급(처 45세)
 - 소득활동시 5년 정지후 50세부터 재지급
 - 60세까지 25년 지급
 - ② 처 40세, 자녀 14세인 경우
 - 자녀가 18세 되는 6년 지급(처 46세)
 - 소득활동시 4년 정지후 50세부터 재지급
 - 60세까지 16년 지급
 - ③ 처 50세, 18세 미만 자녀가 없는 경우
 - 소득활동에 관계없이 유족연금 지급
 - 60세까지 10년 지급
- 자료제공 : 국민연금관리공단 포천시지부 031-544-8700